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2018년 6월 25일
32번째 선교편지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10-301-602(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난 17일, 라나리드 왕자와 부인 옥팔라 여사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옥팔라 여사는 사망하였고, 라나리드 왕자는 태국으로 후송되어 치료중에 있습니다. 라나리드 왕자는 훈신펙당의 대표이기도 하다보니 다가올 7월 총선에 또 다른 파장이 생기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더 나은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총선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을 위해 기도부탁 드리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의 소식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전합니다.



☞ 교회사역

[축구팀(SSFC) 설립추진의 재개] 2년전, 교회사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회 축구팀 설립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몇 가지 문제로 중단된 팀 설립을 다시금 재개했습니다. 축구가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부탁 드리며, 팀으로 활동할 아이들의 중심에 '오직 예수'란 단어가 새겨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부탁 드립니다.



[어린이주일을 섬기며] 사역을 위해 함께 동역해주시는 선교동역자님을 통해서 어린이주일을 섬길 후원을 받았습니다. 동역자님의 바램에 맞춰 놀이만이 아닌 학습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물품을 구입하여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보낸 5월의 마지막 주일... 그 바램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 다수가 학업을 포기했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부류에 속하고 있어 이들의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제목 중 하나이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되게 하소서] 보여지고 드러내는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되길 소원합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활동과 행사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 학교지원사역 & 한국어 방과후교실

[현지학교 지원사역] 돌아온 캄보디아의 첫 일정으로 방문한 학교에서 기다렸다는 듯 교장님으로부터 교육청 감사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동안 지원하면서도 계속 반려했었던 감사장이었는데, NGO설립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겠다는 교장님의 판단하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있었다면 또 반려했을 거라며, 없을 때 추진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진행하셨답니다. 대부분 받기만을 생각하는 캄보디아의 현실을 넘어 서로를 위하는 관계됨에 교장님께 감사했습니다.

돌아온 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너무나도 감사한 감사장입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국어 방과후교실] 6월부터 하반기 언어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참여인원이 10명 남짓 되다 보니 학교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수업에 참여하는 그 10명의 열정이 장소를 허락한 교장님과 가르치는 저에게 사역의 끈을 놓지 않게 합니다.

그 10명의 열정이 주변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요즘은 매 수업마다 한 명, 두 명씩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어교실이 주님을 전하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 학교설립사역과 NGO-The Dream 설립

[학교설립을 위한 팀사역] 지난 3월, 학교설립사역을 위한 논의(파송교회와 단체)에서 사역의 방향을 팀 사역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팀 사역으로 함께하는 정종찬/한성실(하준, 민준, 하임) 선교사 가정을 통해 단순히 사역적 측면이 아닌 삶의 전체를 나누는 교제가 있어 감사하고 지아와 지훈이에게도 좋은 형제자매가 생겨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역을 통해 팀 사역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섬김과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팀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업무(법인관련)가 진행중에 있으며, 매주 사역회의를 겸한 기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동시에 두 가정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부탁 드립니다.



[NGO-The Dream 설립소식] NGO설립과 관련하여 현재 모든 업무가 사실상 마비상태라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다. 이유인즉, 7월 말 있을 선거 때문이라는데, 사실 예상했던 부분이기에 한편으로는 좀더 빨리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그저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이 또한 염려가 됩니다. 단순히 NGO설립만이 아닌 캄보디아에서의 삶과도 직결되는 VISA문제가 있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 가정의 소식

[지민이의 건강소식] 지난 4월, 지민이의 정기검진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지민이의 더딘 성장원인을 찾기 위해 전보다 길었던 일정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이번 검진과 관련하여 '유전과'에서 의심되는 희귀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검진이기에 결과는 11월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장애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막상 장애등급을 받고 보니 부모된 자로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건강하게 낳지 못하고 키우지 못해 많이 미안했습니다. 지민이를 볼 때면 항상 살아있음에 감사했는데, 그날은 부쩍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지민이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지민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픈 자녀로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Homeschooling & 가정의 건강을 위해] 지아와 지훈이의 홈스쿨링에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무엇보다 배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아와 지훈이를 가르치면서 가정을 돌보는 수고하는 김은경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지난 국내 일정에서 건강검진을 계획했으나 지민이의 일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부득이 검진을 취소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약해져 있기에 아내 김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가정의 부고(4월 초)소식으로 급하게 프놈펜으로 향하던 중,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도 허리통증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사역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기도로 함께하길 소원하며] 지난 2월 소식을 전한 후, 한 분의 동역자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는 소식과 함께 동역자님의 소식을 나눠주시며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가정과 사역의 동역이 아닌 삶을 나누는 동역이기에 더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 또한 동역자님의 동역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 기도제목

[교회사역]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모든 계획과 활동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길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설립사역] 매주 모이는 기도모임을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향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두 가정되게 하시며 하나되는 팀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언어학교] 잘 가르치는 것만큼, 수업을 빠지지 않고 끈기 있게 가르치며, 수업이란 약속을 지키는 신뢰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학교사역이 추후 학교사역의 그 초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지민이의 건강과 언어, 행동발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